

에이비엘바이오 (298380)

Analyst 여노래 noraeyeo@hmsec.com
RA 김현석 heunseok0419@hmsec.com

기업간담회 후기: 글로벌 컨텐더까지 딱 한 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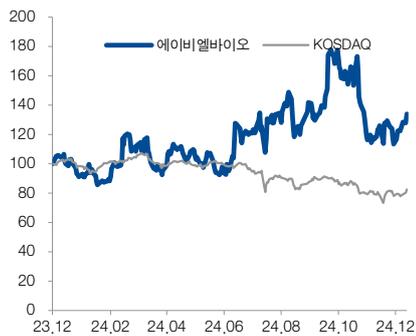
NOT RATED

| | | |
|----------------|-----------------|-----------|
| 현재주가 (1/23) | 33,800원 | |
| 상승여력 | NA | |
| 시가총액 | 1,504십억원 | |
| 발행주식수 | 48,282천주 | |
| 자본금/액면가 | 십억원/500원 | |
| 52주 최고가/최저가 | 41,350원/19,900원 | |
| 일평균 거래대금 (60일) | 55십억원 | |
| 외국인 지분율 | 10.68% | |
| 주요주주 지분율 | | |
| 이상훈 외 12인 | 30.40% | |
| 추가상승률 | 1M | 3M 6M |
| 절대주가(%) | 8.3 | -0.5 15.8 |
| 상대주가(%p) | 6.1 | 7.5 37.2 |

* K-IFRS 연결 기준

| (단위: 원) | EPS(24F) | EPS(25F) | T/P |
|-----------|----------|----------|-----|
| Before | - | - | - |
| After | - | - | - |
| Consensus | - | - | - |
| Cons. 차이 | - | - | - |

최근 12개월 주가수익률



자료: WiseFn, 현대차증권

요약 실적 및 Valuation

| 구분 | 매출액 (십억원) | 영업이익 (십억원) | 순이익 (십억원) | EBITDA (십억원) | EPS (원) | 증감율 (%) | P/E (배) | P/B (배) | EV/EBITDA (배) | ROE (%) | 배당수익률 (%) |
|------|--------------|---------------|--------------|-----------------|------------|------------|------------|------------|------------------|------------|--------------|
| 2019 | 4 | -40 | -37 | -39 | -818 | 적지 | N/A | 8.3 | N/A | N/A | 0.0 |
| 2020 | 8 | -60 | -56 | -58 | -1,207 | 적지 | N/A | 15.9 | N/A | N/A | 0.0 |
| 2021 | 5 | -52 | -44 | -50 | -927 | 적지 | N/A | 18.6 | N/A | N/A | 0.0 |
| 2022 | 67 | 1 | 3 | 3 | 67 | N/A | 341.0 | 15.8 | 328.6 | 4.6 | 0.0 |
| 2023 | 66 | -3 | -3 | 0 | -55 | 적전 | N/A | 15.9 | NA | NA | 0.0 |

* K-IFRS 연결 기준

4,000억의 현금 확보를 기대하는 2025, 데이터 모멘텀에 기술 계약까지

- 2025년 1월 23일 기업간담회를 통해 2025년 마일스톤과 성장 전략 등을 공개
- 새로운 라이선스 아웃을 통한 기술로 확보가 목표 달성의 핵심,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 시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
- 24년 12월 BMS-BioArctic 기술 계약 선금금 1,400억원. 퇴행성뇌질환 파이프라인과 BBB셔틀 플랫폼을 융합한 기술 계약. 에이비엘 바이오의 추가 기술 계약도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
- ABL301의 경우 유니크한 IGF1R 셔틀. 여러 뇌 투과 경로 중 클라트린만 이용하는 트랜스페린(TfR)과 달리 여러 경로를 이용하는 IGF1R 셔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세포내이입(endocytosis)경로, 트랜스페린(TfR) 경로는 노화되면 기능이 저하
- 사노피의 임상 2상 진행으로 IGF1R 셔틀 입증 가능, 2025년 상반기 결과 도출 예정
- ABL001 2025년 3월 말 Compass Therapeutics 탐라인 결과 발표 예정. CFO영입으로 Compass Therapeutics의 M&A가능성도 존재
- 2개 파이프라인 IND진입할 이중항체ADC, 미국 자회사 전략 공개

연구만 할 줄 아는게 아니다. 포지셔닝도 제대로 했다

- BBB셔틀 기술의 검증, 그리고 추가 계약과 담도암 항암제 승인까지 2025년 계속되는 모멘텀 기대. 핵심 파이프라인/마일스톤 정리
- ABL301(알파시누클레인 표적 Grabody-B 탐재, 파킨슨병 치료제): 2025년 상반기 임상 2상 진입, 마일스톤 유입과 긍정적 결과 기대
- ABL001 (DLL4xVEGF 이중항체, 담도암 항암제): 2025년 3월 말 임상 2상 탐라인 결과 공개, 하반기 가속승인 가능성
- 이중항체ADC : 2개 품목 IND신청으로 임상 진입

1. 경영전략 부분: 4,000억의 현금 확보를 기대하는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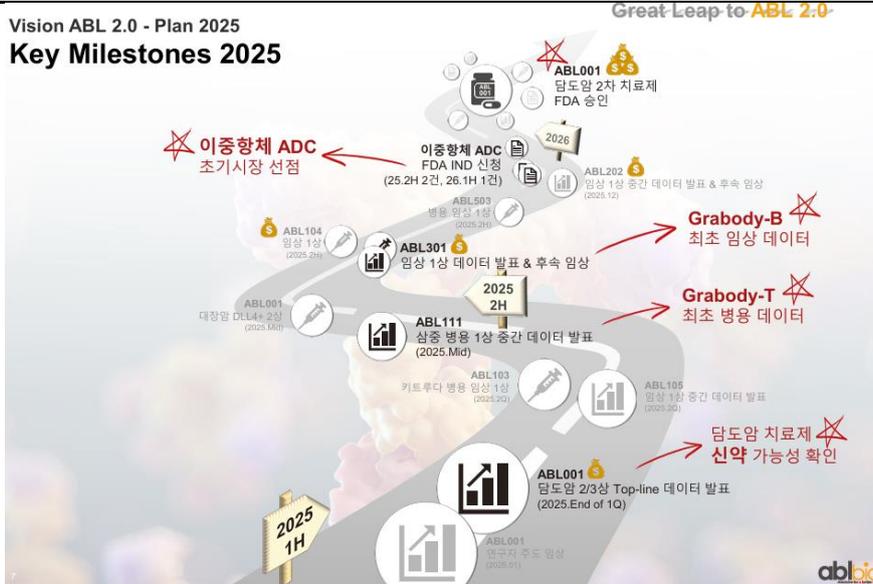
성장 전략과 4,000억원 현금 확보 전략 발표

2024년 7월 1,400억의 유상증자 직후 에이비엘바이오는 2024년 10월 기업간담회를 통해 비전을 발표한 바가 있으며, 당시 추가적인 기술이전과 마일스톤 유입으로 4,000억의 현금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4,000억원의 현금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본과 그리고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400억원의 현금, 2025년 임상 2상 진입까지 계산하여 ABL301파이프라인으로 수취하는 약 600억원의 마일스톤을 포함하고 있다. 즉 2,400억원의 현금은 당시 이미 마련된 수준이었으며 연구비 소모를 가정할 경우 최소 1,600억원에서 2,000억원의 추가적인 현금 확보가 2025년의 목표임을 다시 한번 발표했다.

새로운 라이선스 아웃을 통한 기술료 확보가 목표 달성의 핵심,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 시 달성 가능

1,600억원의 현금 확보 방안은 기술계약을 통한 선급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하반기 간담회 당시 2024년 내로 목표했던 기술계약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들의 추가적인 관심으로 인한 지연으로 언급했다. 기술계약의 경우 다수의 기업들과 탐시와 논의를 주고받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해당 계약에 있어 물질 표적에 대한 독점/비독점 여부 등 다양한 내용을 논의한다. 계약 규모와 독점여부가 결정되면 선급금의 규모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 목표하던 기술 계약이 성공할 경우 앞서 목표했던 4,000억원의 현금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23년 12월 글로벌 제약사 안센으로 기술이전을 했던 리카캠바이오의 경우 약 1,300억원의 선급금을 수령했다.

<그림1> 에이비엘 바이오 2025년 마일스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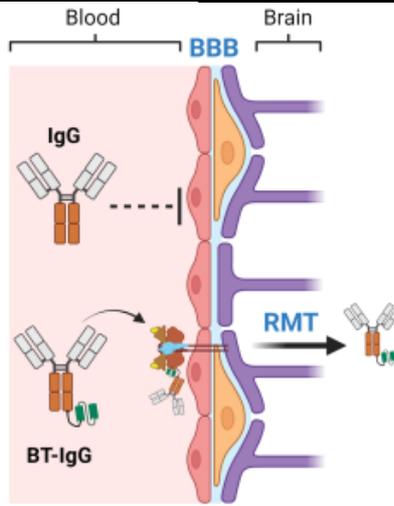


자료 : 에이비엘바이오, 현대차증권

24년 12월 BMS-BioArctic 기술 계약 선금금 1,400억원. 퇴행성뇌질환 파이프라인과 BBB셔틀 플랫폼을 융합한 기술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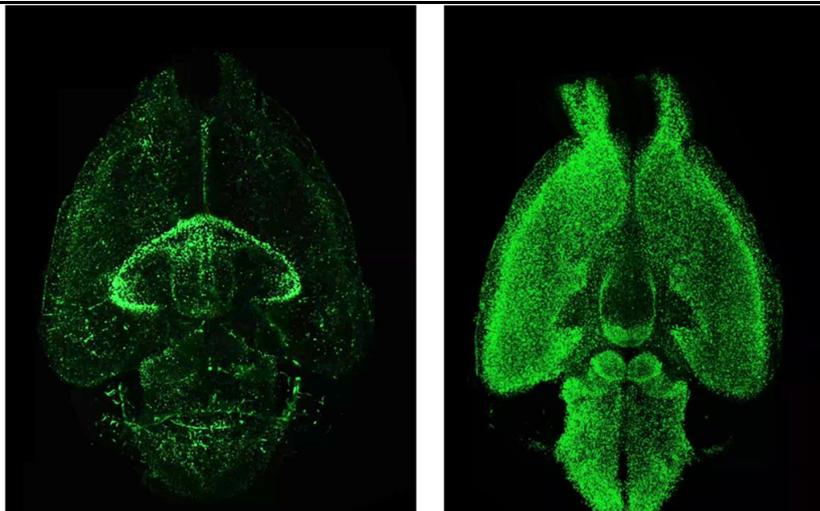
근거는 가장 최근 있었던 BMS-BioArctic의 기술 계약이다. BMS는 2024년 12월 19일 에자이와 레켄비(Leqembi, Recanemab)을 공동개발한 스웨덴의 BioArctic으로부터 2개의 전임상 알츠하이머 치료제 파이프라인인 BAN1503과 BAN2803을 1.25B USD, 선금금 100M USD에 독점계약으로 도입했다. BAN1503은 파이로글루타메이트-아밀로이드 베타(Pyroglutamate-A β)를 표적하는 항체로, 아밀로이드 베타 중에서도 응집체를 빠르게 형성하는 파이로글루타메이트-아밀로이드 베타를 표적해 제거하는 기전으로 작동한다. BAN2803은 동일한 표적에 트랜스페린 수용체 1(TfR1)을 응용하는 BBB셔틀 기술을 탑재한 파이프라인이다. 결국 하나의 독점적 표적에 셔틀 플랫폼을 추가하는 형태의 딜이며, 이미 레켄비를 개발한 경험을 통해 2개 파이프라인을 동시개발하여 아직 승인약물이 없어 불확실한 BBB 셔틀기술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기술 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2> BioArctic의 BBB셔틀 플랫폼 BrainTransporter™ (BT) technology platform 모식도



자료 : BioArctic, 현대차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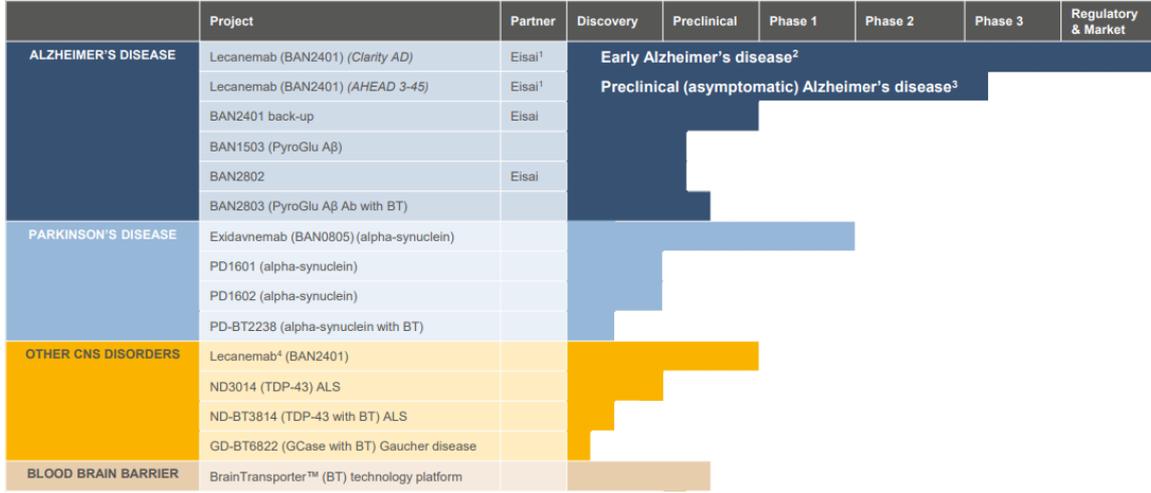
<그림3> BioArctic의 BBB셔틀 플랫폼 BrainTransporter™ (BT) technology platform 모식도



자료 : BioArctic, 현대차증권

<그림4> BioArctic의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현황. BBB셔틀 기술은 전임상 단계

A broad project portfolio with a focus on neurodegenerative diseases



as of September 30, 2024

1) Partner with Eisai for lecanemab for treatment of Alzheimer's disease since 2007. Eisai entered partnership with Biogen regarding BAN2401 (lecanemab) in 2014
 2) Mild cognitive impairment due to Alzheimer's disease and mild Alzheimer's disease
 3) Normal cognitive function with intermediate or elevated levels of amyloid in the brain
 4) Dementia and cognitive impairment associated with Down's syndrome and with traumatic brain inj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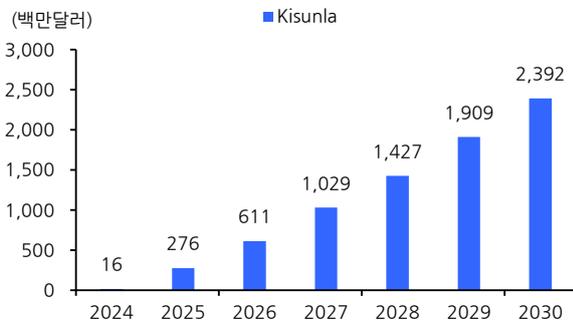


자료 : BioArctic, 현대차증권

에이비엘 바이오의 추가 기술 계약도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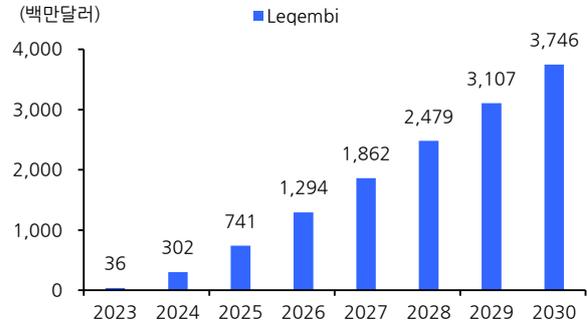
에이비엘 바이오의 차기 기술계약 대상도 유사한 형태의 기술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계약된 BioArctic의 BBB셔틀에 대한 추가계약도 결국 트랜스페린 응용 셔틀기술이 로슈의 트론타네마의 임상 1상 종료, 그리고 임상 2상 진입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즉, 임상 결과를 통한 셔틀 기술의 입증은 추가 기술 계약의 규모와 형태 양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상반기 중으로 진행될 ABL301의 임상 2상 진입이 Grabody-B 셔틀 플랫폼의 확장성과 에이비엘 바이오의 기업 비전의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5> 키순라 매출 전망



자료 : EP, 현대차증권

<그림6> 레캄비 매출 전망



자료 : EP, 현대차증권

2. ABL301: 다양한 투과경로로 BBB를 투과, IGF1로 쏘리는 관심

여러 뇌 투과 경로 중 클라 트린만 이용하는 트랜스페린 (TfR) 셔틀, 반면 여러 경로를 이용하는 IGF1R 셔틀

결국 Grabody-B 셔틀 플랫폼의 기술이전 성과의 핵심은 현재 시장에서 여러 개발사가 존재/시도되고 있는 트랜스페린 셔틀과 달리, IGF1R이라는 에이비엘 바이오만의 차별화된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데 있다. 리셉터 단백질을 경유해서 뇌-혈관 장벽(BBB)를 통과하는 경로는 6가지로 구분되는데, 현재 로슈와 앞서 기술이전된 BioArctic사가 이용하는 트랜스페린은 클라트린을 응용하는 경로만을 이용하여 뇌-혈관 장벽을 통과한다. 반면 IGF1R의 경우 카베올리나와 FEME의 추가적인 경로를 이용한다.

<그림7> Grabody-B의 BBB투과 결과들



자료 : 에이비엘바이오, 현대차증권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새 포내이입(endocytosis)경로, 트랜스페린(TfR) 경로는 노화 되면 기능이 저하

핵심은 이런 통과 경로가 나이에 따라 변화한다는 연구 결과다. 2020년 발표된 논문에서 BBB를 통과하는 경로가 젊은(3개월생 마우스)조직과 늙은(20-24개월생 마우스) 조직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젊은 생쥐의 뇌는 주로 클라트린 경로를 이용하는 반면, 늙은 생쥐의 뇌는 카베올린을 주로 사용했다. 해당 결과를 통해 추측해보면 노화에 따라 투과경로가 변경되면 트랜스페린 셔틀의 기능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해 볼 수 있다. 또한 BBB투과율의 변화는 유효성과 안전성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Grabody-B를 적용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높아지는 뇌내 투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핵심 부작용인 ARIA(amyloid-related imaging abnormalities; 아밀로이드 관련 비정상 영상 소견)-E/H의 발생을 유도하는 혈관 응집도 관찰되지 않아 안전성 면에서의 개선도 기대되고 있다.

<그림8> Compass Therapeutics의 연구개발 업데이트. 1분기 말로 확정된 탐라인 결과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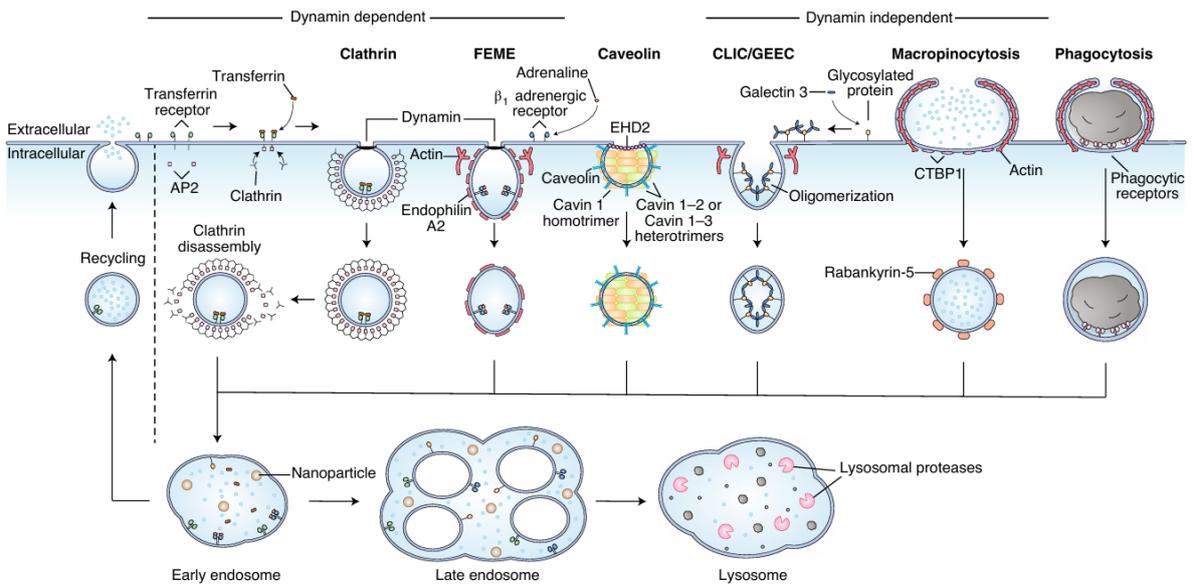
DEVELOPMENT PIPELINE UPDATES:

Tovecimig (CTX-009 - DLL4 x VEGF-A bispecific antibody)

- Top-line data readout in the U.S. on track for the end of Q1 2025 for COMPANION-002, the Company's Phase 2/3 randomized trial of tovecimig in combination with paclitaxel in patients with advanced BTC ([see press release](#)).
- Continuing to design and plan a Phase 2 study in patients with DLL4-positive colorectal cancer in the second-line setting in combination with chemotherapy, which is expected to initiate in mid-2025.
- An IST (investigator sponsored study) of tovecimig in patients with BTC in the first-line setting at 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is being initiated in Q1 2025. Tovecimig will be added to the standard first-line regimen of gemcitabine, cisplatin, and durvalumab ([see press release](#)).

자료 : Compass Therapeutics, 현대차증권

<그림9> 다양한 세포내이입(endocytosis) 경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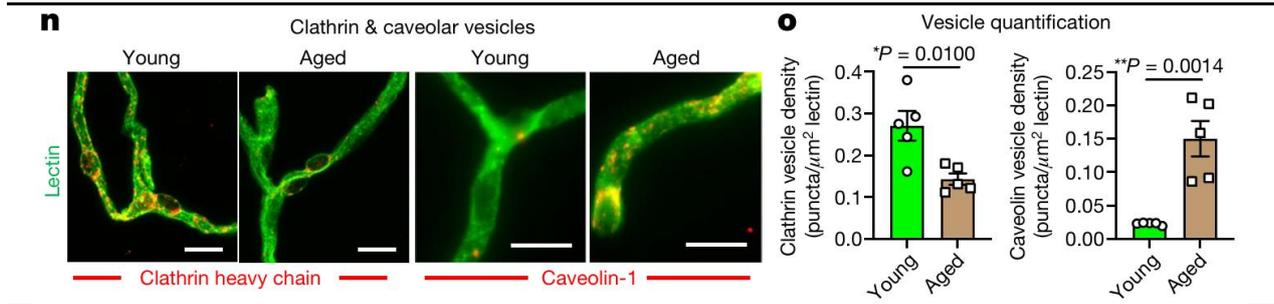
자료 : Nature nanotechnology, 현대차증권

3. ABL001: 담도암에서 발생하는 로열티가 발판이 될 것

2025년 3월 말 Compass Therapeutics 탐라인 결과 발표 예정. CFO영입으로 M&A가능성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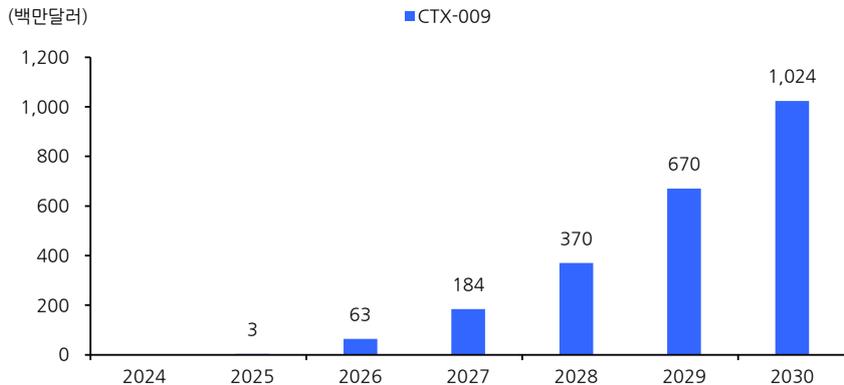
Compass Therapeutics는 JPM2025 기간동안 임상 결과 공개와 CFO영입 소개로 JPM 2025 직전인 1월 8일부터 현재까지 80%의 시가총액 상승을 보이고 있다. ABL001의 담도암에서의 2/3차 치료제로의 데이터가 예상대로 2025년 1분기 말에 공개될 것으로 보고되었고, 새로운 CFO의 영입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결국 Compass Therapeutics와 같은 빠른 파이프라인의 런칭을 앞둔 기업은 글로벌 제약사의 인수합병(M&A)의 대상이기 때문에, 투자은행 경험이 있는 CFO의 영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ABL001의 개발 차후 방향에 있어, 대장암 2차 치료제로 임상 2상과 연구자주도 임상(ITT)로 화학치료제 병용으로 담도암 1차 치료제 임상이 진행될 것임을 보고했다. 결국 예상대로 1분기 말인 3월 임상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가속승인으로 연내 상용화까지 가능한 파이프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림10> 노화에 따른 세포내이입 경로의 변화. 클라트린 경로에서 늙은 마우스는 카베올린 경로를 더 많이 사용(좌, n), 실제 소포체 밀도의 차이(우, o)



자료 : Nature, 현대차증권

<그림11> CTX-009 매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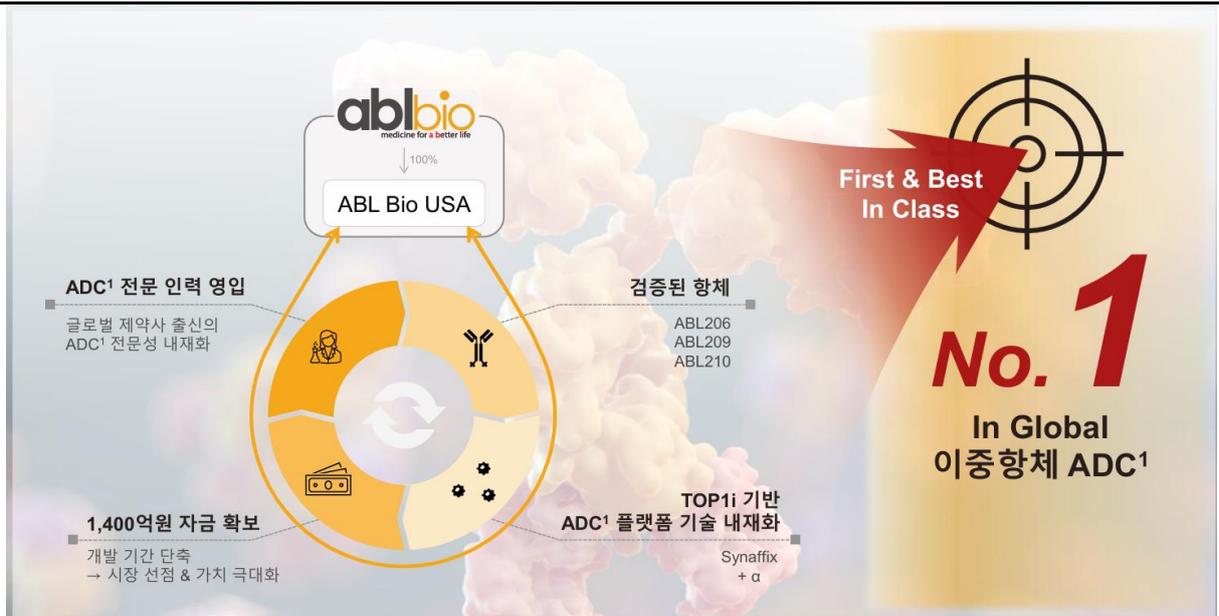
자료 : Nature, 현대차증권

4. 이중항체ADC: IND가 최우선 목표, Payload 콜라보레이션도 기획 중

ABL BIO USA 현황 및 전략 공개. ADC전문 자회사로 전문인력 채용과 운영 예정

에이비엘바이오의 이중항체ADC 파이프라인들의 코드명인 ABL20X프로젝트에 대한 현황도 공개되었다. 우선ABL BIO USA를 설립하여 100% 자회사로 운영하며 이중항체 ADC를 개발/임상을 진행하게 된다. ABL BIO USA로 분리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기존의 이중항체와 플랫폼화에 집중된 에이비엘과 별도로 ADC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개발 및 임상에 집중하기 위해서이며, 두 번째로는 미국 자회사로 운영 될 경우 추후 ADC에 대해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할 경우, 파이프라인들과 같이 자회사를 미국 내에서 M&A타깃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ABL BIO USA는 ADC 전문 인력으로 대표이사과 CMO등 연구개발 핵심인력을 탐색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우선적으로는 Synaffix와 계약된 ABL206, ABL209 2개의 파이프라인은 2025년 내 IND를 앞두고 있다. 각 파이프라인의 표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림12> ABL Bio USA 사업개발 전략 및 현황



자료 : 에이비엘바이오, 현대차증권

Synaffix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인투셀/바이오사이토텐 과 약물 콜라보레이션 예정

또한 차후 개발되는 ABL20X 파이프라인들에는 국내 상장 예정인 인투셀과 중국의 바이오사이토텐(BioCytogen)의 이중약물 또는 단일약물을 사용할 예정임을 소개했다. 이중항체 기술 외적인 약물-링커 기술에서 다양한 기업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은 우선적으로는 이미 승인된 이력이 있는 synaffix의 기술을 사용하지만, 과도한 의존으로 ABL BIO USA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BBB셔틀 기술의 검증, 그리고 추가 계약과 담도암 항암제 승인까지 2025년 계속되는 모멘텀 기대

5. 총평: 연구만 할 줄 아는게 아니다. 포지셔닝도 제대로 했다.

현재 레킴비와 키순라로 빠르게 개화되는 퇴행성신경질환 시장에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로선 시장을 양분하고 있지만 아쉬운 효과와 아직까지는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만 사용되는 제한적인 적응증으로 적극적인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의 기술적인 한계를 돌파하려는 연구개발의 중심에 BBB셔틀 플랫폼 기술과 에이비엘바이오가 포지셔닝 되어 있다. 특히 셔틀 기술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시도하는 트랜스페린과 별도의 기술인 접이 연구개발 당시에는 리스크였지만 현재 임상으로 조금씩 확인되면서 에이비엘바이오만의 독특한 포지셔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BBB셔틀 기술이 임상을 통해 확인되면 새로운 표적으로 개발 중인 파킨슨/알츠하이머 치료제뿐만 아니라 현재 판매 중인 알츠하이머 치료제들과의 플랫폼 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말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데이터 모멘텀을 기다려보자.

COMPANY REPORT

| | (단위:십억원) | | | | |
|----------------|----------|--------|---------|-------|-------|
| 포괄손익계산서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매출액 | 4 | 8 | 5 | 67 | 66 |
| 증가율 (%) | 217.1 | 103.2 | -34.2 | N/A | -2.6 |
| 매출원가 | 0 | 0 | 0 | 0 | 0 |
| 매출원가율 (%) | 0.0 | 0.0 | 0.0 | 0.0 | 0.0 |
| 매출총이익 | 4 | 8 | 5 | 67 | 66 |
| 매출이익률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증가율 (%) | 217.1 | 103.2 | -34.2 | N/A | -2.6 |
| 판매관리비 | 44 | 68 | 58 | 66 | 68 |
| 판매비율(%) | 1,113.5 | 836.0 | 1,081.0 | 98.7 | 104.0 |
| EBITDA | -39 | -58 | -50 | 3 | 0 |
| EBITDA 이익률 (%) | -972.2 | -710.5 | -940.5 | 4.8 | 0.0 |
| 증가율 (%) | 적지 | 적지 | 적지 | N/A | 적전 |
| 영업이익 | -40 | -60 | -52 | 1 | -3 |
| 영업이익률 (%) | -1,013.5 | -736.0 | -981.0 | 1.3 | -4.0 |
| 증가율 (%) | 적지 | 적지 | 적지 | N/A | 적전 |
| 영업외손익 | 3 | 4 | 9 | 2 | 0 |
| 금융수익 | 4 | 10 | 9 | 7 | 7 |
| 금융비용 | 0 | 4 | 1 | 7 | 6 |
| 기타영업외손익 | 0 | -1 | 1 | 3 | -1 |
|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 0 | 0 | 0 | 0 | 0 |
| 세전계속사업이익 | -37 | -56 | -44 | 3 | -3 |
| 세전계속사업이익률 | -927.7 | -686.1 | -816.9 | 4.8 | -4.0 |
| 증가율 (%) | 적지 | 적지 | 적지 | N/A | 적전 |
| 법인세비용 | 0 | 0 | 0 | 0 | 0 |
| 계속사업이익 | -37 | -56 | -44 | 3 | -3 |
| 중단사업이익 | 0 | 0 | 0 | 0 | 0 |
| 당기순이익 | -37 | -56 | -44 | 3 | -3 |
| 당기순이익률 (%) | -927.7 | -686.1 | -816.9 | 4.8 | -4.0 |
| 증가율 (%) | 적지 | 적지 | 적지 | N/A | 적전 |
| 지배주주지분 손이익 | -37 | -56 | -44 | 3 | -3 |
| 비지배주주지분 손이익 | 0 | 0 | 0 | 0 | 0 |
| 기타포괄이익 | -1 | 0 | 0 | 0 | -1 |
| 총포괄이익 | -38 | -56 | -43 | 3 | -3 |

| | (단위:십억원) | | | | |
|-----------------|----------|------|------|------|------|
| 현금흐름표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24 | -47 | -41 | 72 | -28 |
| 당기순이익 | -37 | -56 | -44 | 3 | -3 |
| 유형자산 상각비 | 2 | 2 | 2 | 2 | 2 |
| 무형자산 상각비 | 0 | 0 | 0 | 0 | 0 |
| 외환손익 | -1 | 0 | -1 | 2 | 0 |
| 운전자본의 감소(증가) | 1 | -4 | 1 | 60 | -33 |
| 기타 | 12 | 10 | 1 | 4 | 4 |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8 | -4 | 20 | -71 | 30 |
|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 4 | -21 | 7 | -28 | 25 |
| 유형자산의 감소 | 0 | 0 | 0 | 0 | 0 |
| 유형자산의 증가(CAPEX) | -2 | 0 | -1 | -3 | -6 |
| 기타 | -11 | 17 | 14 | -40 | 11 |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0 | 1 | 0 | 5 | 1 |
| 차입금의 증가(감소) | 1 | 0 | 0 | 42 | 2 |
| 사채의증가(감소) | 0 | 0 | 0 | 0 | 0 |
| 자본의 증가 | 2 | 9 | 7 | 385 | 3 |
| 배당금 | 0 | 0 | 0 | 0 | 0 |
| 기타 | -3 | -8 | -6 | -422 | -3 |
| 기타현금흐름 | 1 | 0 | 1 | -2 | 0 |
| 현금의증가(감소) | -31 | -50 | -19 | 4 | 3 |
| 기초현금 | 122 | 91 | 41 | 22 | 25 |
| 기말현금 | 91 | 41 | 22 | 25 | 28 |

* K-IFRS 연결 기준

| | (단위:십억원) | | | | |
|---------|----------|------|------|------|------|
| 재무상태표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유동자산 | 135 | 72 | 45 | 81 | 76 |
| 현금성자산 | 91 | 41 | 22 | 25 | 28 |
| 단기투자자산 | 0 | 0 | 0 | 8 | 8 |
| 매출채권 | 0 | 0 | 0 | 0 | 0 |
| 재고자산 | 0 | 0 | 0 | 0 | 0 |
| 기타유동자산 | 1 | 1 | 2 | 2 | 4 |
| 비유동자산 | 8 | 28 | 20 | 105 | 85 |
| 유형자산 | 5 | 4 | 3 | 7 | 76 |
| 무형자산 | 3 | 3 | 3 | 3 | 3 |
| 투자자산 | 0 | 21 | 14 | 28 | 4 |
| 기타비유동자산 | 0 | 1 | 1 | 67 | 2 |
| 기타금융업자산 | 0 | 0 | 0 | 0 | 0 |
| 자산총계 | 143 | 100 | 65 | 185 | 160 |
| 유동부채 | 9 | 8 | 9 | 72 | 42 |
| 단기차입금 | 0 | 0 | 0 | 0 | 0 |
| 매입채무 | 0 | 0 | 0 | 0 | 0 |
| 유동성장기부채 | 0 | 0 | 0 | 0 | 0 |
| 기타유동부채 | 9 | 8 | 9 | 72 | 42 |
| 비유동부채 | 2 | 1 | 1 | 43 | 44 |
| 사채 | 0 | 0 | 0 | 0 | 0 |
| 장기차입금 | 0 | 0 | 0 | 40 | 43 |
| 장기금융부채 | 0 | 0 | 0 | 0 | 0 |
| 기타비유동부채 | 2 | 1 | 1 | 3 | 1 |
| 기타금융업부채 | 0 | 0 | 0 | 0 | 0 |
| 부채총계 | 11 | 9 | 9 | 116 | 86 |
| 지배주주지분 | 132 | 91 | 56 | 70 | 74 |
| 자본금 | 23 | 23 | 24 | 24 | 24 |
| 자본잉여금 | 334 | 342 | 349 | 361 | 364 |
| 자본조정 등 | 18 | 24 | 26 | 24 | 29 |
| 기타비유동부채 | 0 | 0 | 0 | 0 | 0 |
| 이익잉여금 | -243 | -299 | -343 | -339 | -342 |
| 비지배주주지분 | 0 | 0 | 0 | 0 | 0 |
| 자본총계 | 132 | 91 | 56 | 70 | 74 |

| | (단위:원, 배, %) | | | | |
|---------------------|--------------|--------|-------|-------|-----------|
| 주요투자지표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EPS(당기순이익 기준) | -818 | -1,207 | -927 | 67 | -55 |
| EPS(지배순이익 기준) | -818 | -1,207 | -927 | 67 | -55 |
| BPS(자본총계 기준) | 2,914 | 1,960 | 1,187 | 1,455 | 1,547 |
| BPS(지배지분 기준) | 2,914 | 1,960 | 1,187 | 1,455 | 1,547 |
| DPS | 0 | 0 | 0 | 0 | 0 |
| P/E(당기순이익 기준) | N/A | N/A | N/A | 341.0 | N/A |
| P/E(지배순이익 기준) | N/A | N/A | N/A | 341.0 | N/A |
| P/B(자본총계 기준) | 8.3 | 15.9 | 18.6 | 15.8 | 15.9 |
| P/B(지배지분 기준) | 8.3 | 15.9 | 18.6 | 15.8 | 15.9 |
| EV/EBITDA(Reported) | N/A | N/A | N/A | 328.6 | -42,110.1 |
| 배당수익률 | 0.0 | 0.0 | 0.0 | 0.0 | 0.0 |
| 성장성 (%) | | | | | |
| EPS(당기순이익 기준) | 적지 | 적지 | 적지 | N/A | 적전 |
| EPS(지배순이익 기준) | 적지 | 적지 | 적지 | N/A | 적전 |
| 수익성 (%) | | | | | |
| ROE(당기순이익 기준) | -25.6 | -49.9 | -59.4 | 4.6 | -3.7 |
| ROE(지배순이익 기준) | -25.6 | -49.9 | -59.4 | 4.6 | -3.7 |
| ROA | -23.7 | -45.8 | -52.7 | 1.7 | -1.5 |
| 안정성 (%) | | | | | |
| 부채비율 | 8.3 | 10.2 | 17.0 | 166.4 | 116.2 |
| 순차입금비율 | 순현금 | 순현금 | 순현금 | 순현금 | 순현금 |
| 이자보상배율 | N/A | N/A | N/A | 0.7 | NA |

▶ 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 일자 | 투자 의견 | 목표주가 | 과리율(%) | |
|------------|-----------|------|--------|-------|
| | | | 평균 | 최고/최저 |
| 2025.01.06 | NOT RATED | - | | |
| 2025.01.24 | NOT RATED | - | | |

▶ 최근 2년간 에이비엘바이오 주가 및 목표주가



▶ Compliance Note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발행과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중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여노래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 의견 분류

- ▶ 업종 투자 의견 분류 현대차증권의 업종투자 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업종 펀더멘털과 업종주가의 전망을 의미함.
 - OV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 NEUTRAL :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 UND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 ▶ 현대차증권의 종목투자 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상대수익률을 의미함.
 - BUY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상
 - MARKETPERFORM(M.PERFORM)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 ~ +15%P 이내
 - SELL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하

▶ 투자등급 통계 (2024.01.01~2024.12.31)

| 투자등급 | 건수 | 비율(%) |
|------|------|-------|
| 매수 | 170건 | 93.9% |
| 보유 | 11건 | 6.1% |
| 매도 | 0건 | 0% |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